강성률 교수의

철학 이야기

광주교육대학교 명예교수, 철학박사
유튜브 '강성률 철학티비'

철학자들의 고집(9)-햇빛이나 가리지 말아주시오-디오게네스

거지(?) 철학자 디오게네스(기원전 400년~323년 무렵)는 흑해 연안의 항구 상업도시 시노페에서 환전상(換錢商)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주화(鑄貨-동전)를 위조하다가 들켜 쫓겨 다녔는데, 디오게네스 역시 아버지를 따라 가짜 돈을 만들었다는 죄목으로 고향에서 쫓겨나야 했다. 그 후 아테네로 망명하여서는 정신적인 의미에서의 위조화폐를 만들어, '공인된 가치'와 다른 가치를 창조했다고 한다.

아테네에 와 살면서 디오게네스는 당대의 기인(奇人)으로 소문 나기 시작했다. 그가 대낮에도 등불을 들고 다니자 사람들이 그 까닭을 물었다. 이때 디오게네스는 "내 눈으로는 현자(賢者)를 찾기가 힘들어 그렇다."고 대답하였다고 한다. 그는 "모름지기 사람이란 이성을 갖든지, 아니면 목매달 끈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디오게네스는 '덕이란 모든 육체적 쾌락을 피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며, 이를 위해서는 결핍과 곤고(困苦), 모욕을 참아내는 강한 정신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여러 가지 기행으로 널리 알려진 디오게네스이지만, 알렉산드로스 대왕과의 만남은 특히 유명하다. 그리스 여러 나라 대표가 코린트(=고린도)에 모여 알렉산드로스를 장군으로 삼고 페르시아를 정벌하기로 결정하자, 수많은 정치가들과 철인(哲人)들이 그를 방문하여 축하 인사를 건넸다. 그런데 오직 디오게네스만 오지 않았다. 이에 알렉산드로스는 부하들을 거느리고 직접 그를 찾아갔다. 마침 따뜻한 햇볕을 쬐고 있던 디오게네스를 보고, 알렉산드로스가 "내가 알렉산드로스인데, 원하는 것이 있으면 말해 보시오. 무엇이든지 들어주겠소!" 하고 말했다. 그러자 물끄러미 왕을 바라보던 디오게네스가 대답했다. "저 쪽으로 좀 비켜 주시오. 당신에게 가려 햇볕이 들지 않거든." 그와 헤어져 돌아온 뒤, 디오게네스의 대꾸와 행색을 비웃는 부하들에게 대왕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내 생각은 너희와 다르다. 내가 만약 알렉산드로스가 아니었다면, 나는 디오게네스가 되었을 것이다."

세상에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지배하고 정복하려고만 했던 제왕, 그와 정반대로 세상 것들을 무엇이든지 버리려고만 했던 철학자의 절묘한 만남이라고나 할까? 그러나 디오게네스는 단순한 기인이 아니었다. 하루는 길거리에서 신전의 제사(祭司=사제)들이 헌금을 훔쳐 가던 사나이를 붙잡아가는 것을 보았다. 디오게네스는 손가락질을 하면서, "저기 큰 도둑이 좀도둑을 잡아가고 있다."고 소리를 질렀다.

디오게네스는 전 생애를 통틀어 옷 한 벌, 한 개의 지팡이, 물을 떠먹기 위해 지니고 다니는 호박(琥珀, 누른빛을 띠고 윤이 나는 광물)으로 된 그릇, 두타대(頭陀袋-옷 등을 넣은 자루) 외에는 아무것도 몸에 걸치지 않았다. 그러나 어느 날, 한 어린아이가 손으로 물을 떠 마시는 것을 보고(다른 설에는 개가 물을 마시는 장면을 보고) 물그릇마저 내동댕이치고 말았다고 한다. 인간이 아무런 소유 없이 잘 살아갈 수 있다고 믿어왔던 디오게네스이지만, 아직 자신이 철저하지 못했음을 다시 한 번 깨달은 것이다.

디오게네스의 마지막 모습도 평범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90세가 되었을 때, 그는 일부러 숨을 쉬지 않아 죽었다고 한다. 혹은 익지 않은 고기를 먹다가 식중독으로 사망했다는 설도 있다. 무욕(無慾)과 자족(自足), 무치(無恥) 등 '개의 삶과 닮은' 생활을 목표로 삼았던 생애 때문인지 몰라도, 그의 무덤엔 개집(=항아리)에 들어가 있는 강아지의 모습이 조각되어 있었다고 한다.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시골 텃밭 마약 양귀비 재배 주의하세요

2025년이 시작된지도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설레이는 봄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한다. 특히 시장이나 꽃집 앞 꽃들이 손짓을 하는 것 같이 느껴진다. 그 중 관상용 양귀비 꽃을 보니 곧 언론을 통해 텃밭에서 치료용으로 마약 양귀비를 키우다가 적발됐다는 기사를 접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경찰은 이미 지난 3. 1부터 7. 31까지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 단속에 돌입했는데 경찰청에서 제공한 최근 3년간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을 보면 '21년 10,626건, '22년 12,387명, '23년 17,817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 중 시골지역은 마당, 텃밭에 양귀비를 심어 적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 중 88.5%가 60대였다. 실제로 지난해 고흥군에서도 양귀비 밀경작으로 9명이 적발되었다.

양귀비는 아편과 헤로인의 원료 쓰여 허가없이 재배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단 1주라도 고의성이 입증되면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입건된다.

경찰은 양귀비를 치료목적으로 재배하는 노인까지 단속해 전과자를 양산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양귀비 50주 미만이면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거쳐 동종전과 또는 즉결심판 이력이 없는 경우 최대한 훈방, 50주 이상일 때만 형사입건할 계획이다.

시골에서는 양귀비의 잎, 종자 등에 항암, 진통효과가 있다는 이유로 관상용이 아닌 마약용 양귀비를 기르는 경우가 잦다. 특히 신경통, 불면 등 노인성 질환을 앓는 고령층이 텃밭 등에서 몰래 기르다 적발되곤 한다.

텃밭 작물이 자라나는 시기에 꽃잎 중앙에 검은 점이 있고, 열매가 작은 도토리 모양으로 보인다면 '마약'이니 주의를 당부드린다. 고흥서 경무계 경감 정선하

기고

화재 예방 우리 모두가 함께하자

겨울철 지속되는 추위에 옷을 꽁꽁 싸매고 출근길을 나선 게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월의 새 봄의 따뜻한 기운이 우리를 찾아왔다.

새싹이 움트는 봄, 소방서에서는 마냥 반갑기만 하진 않다. 봄철은 다른 계절에 비해 특히 건조한 바람이 부는 경우가 많아 화재에 몹시 취약하기 때문이다.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봄철은 건조한 대기, 그리고 강풍과 맞물려 대형 화재로 번지기 쉬운 시기다. 그래서, 우리는 봄철 화재 예방에 대비해야 한다. 이에 화재 피해 방지에 관련된 4가지 당부사항을 전달하고자 한다.

첫째, 가정에서의 화재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가정 내에서 사용하는 전기용품 중,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전기용품은 코드를 뽑아놔야 한다.

또한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정격 전압에 맞는 멀티탭을 사용해야 한다. 인화성 물질 또는 화기를 사용할 때 안전 수칙 준수, 가정 내 화재경보기의 배터리를 점검 등을 실시해 화재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둘째, 봄철에는 등산, 캠핑 등 야외 활동을 즐기는 사람이 많다. 야외 활동 시에도 화재 예방에 대한 인식을 공고히 해야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화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나, 불가피하게 사용하는 경우 허가된 안전한 장소에서만 사용해야 한다. 담배꽁초를 아무 데나 버리거나, 불씨를 방치하는 것처럼 부주의한 행동은 산림 화재를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임을 인지해야 한다.

셋째, 봄철에는 건조한 환경과 바람으로 인해 불이 쉽게 번질 수 있는 시기로 쓰레기 소각이나 잔디를 태우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더불어 전기와 가스를 사용하는 농작업이 많아지는 시기로 화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정기적인 점검과 유지 보수가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화재 발생 시 적절한 대처 행동을 알고 있어야 한다. 화재가 발생하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한다. 가정 및 일터에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도 대형 화재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작은 실천이 곧 화재 예방과 직결되는 관심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 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여 가정의 행복을 실천하고 화재와 각종 재난이 없는 안전한 만춘지절을 누리기를 기대한다.

고흥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채영환

오늘의 운세 2025년 3월 31일 월요일 (음력 3월 3일)

48년생 변한 건 나이다. 불가능에 도전하자.60년생 사는 맛 더해지는 호시를 누려보자.72년생 어려운 요구도 기꺼이 받아주자.84년생 간다 온다, 없이 이별을 준비하자.96년생 시험은 무사통과 백 점을 받아낸다.

49년생 감회가 남다른 축하를 받아보자.61년생 이웃 지간 이어도 주고받아야 한다.73년생 타끌 모아 태산 차곡차곡 쌓아가자.85년생 끈질긴 구애 포기가 없어야 한다.97년생 참는 법과 기다리는 법을 알아내자.

50년생 술이 곁들여지는 잔치를 벌여보자.62년생 충분하다 싶은 차선을 가져오자.74년생 나누는 인심 배가 되어 돌아온다.86년생 새로운 영역 넓은 세상을 향해 가자.98년생 친구였던 사이 그리움이 되어 간다.

51년생 굳이 하는 확신 돌다리도 두드리자.63년생 속에 있는 진심 애정 표현해보자.75년생 주인인지 객인지 선을 그어내자.87년생 이만큼 잘한다. 무용담이 펼쳐진다.99년생 든든하고 멋있는 모습만 보여주자.

52년생 미움도 원망도 품으로 안아주자.64년생 기대에 없던 것이 감동을 더해준다.76년생 무모한 용기 고생 문턱을 넘어선다.88년생 새 술은 새 부대에 목표를 다시 하자.00년생 열정으로 가는 사다리를 건너보자.

53년생 슬픈 헤어짐 그림자가 깊어진다.65년생 혼자만의 욕심 많은 것을 잃어간다.77년생 가난했던 시절 이야기가 꺼내진다.89년생 쓰리고 아픈 지적 약으로 해야 한다.01년생 갈고 닦은 실력은 점수로 매겨진다.

54년생 아름다운 솜씨 작품으로 남겨진다.66년생 수줍게 오는 유혹 예쁘게 받아내자.78년생 관심 없다 표시 이별 인사 대신이다.90년생 밀려있는 숙제 빠르게 정리하자.02년생 이유 있는 변명 불이익과 맞서보자.

55년생 땀으로 얻은 결실 부자가 되어보자.67년생 잔뜩 했던 걱정 모양만 빠져 간다.79년생 실전 같은 연습 각오를 다시 하자.91년생 첫 눈에 반해지는 만남을 가져보자.03년생 기특한 생각이다. 칭찬을 들어보자.

56년생 싫어도 좋은 척 가면을 써야 한다.68년생 공격이 아닌 수비 뒷걸음쳐야 한다.80년생 늦지 않은 시작 큰 그림을 그려보자.92년생 가파른 상승세 날개가 달려진다.04년생 하소연도 해보고 응석도 부려보자.

57년생 주저하는 망설임 기회는 달아난다.69년생 할 수 있다 용기 기적을 불러낸다.81년생 오고 가는 선물 행복 꽃이 피어진다.93년생 둘도 없는 단짝 같은 꿈을 가져보자.05년생 터져버리는 웃음 만세가 불려진다.

58년생 물심양면 도움 어깨가 든든해진다.70년생 오지 않을 미련 흔적조차 지워내자.82년생 초라할 수 있어도 현실이 우선이다.94년생 고생한 대가를 톡톡히 받아내자.06년생 기쁨과 설렘 주는 제안을 들어보자.

47년생 최고라는 자부심 쉬워 보이지 마라.59년생 밀고 당기던 거래도 장이 찍혀진다.71년생 정작한 땅으로 목표를 향해 가자.83년생 떠오르는 샛별 유명세가 따라온다.95년생 멋으로 하지 마라 진심만 보여주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광전매일신문 e-mail : gwangmae5678@hanmail.net

회 장 이송암 발행인 · 대표이사 정길화

편집인 전광춘 편집국장 박선주

2016년 8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 00065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 20번길 8. 2층

대표전화 (062)525-9775 <팩 스>(062)528-4566

회 장 실 (내선)210 편 집 국 교 2001

임 원 실 (내선)207 정 경 부 교 2003

총 무 국 교 2002 사 회 부 교 2004

광 고 국 교 2006 사 업 국 교 2007

인쇄 :(주)대한칼라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13,000원 · 1부700원